

1. 서울시민의 운동참여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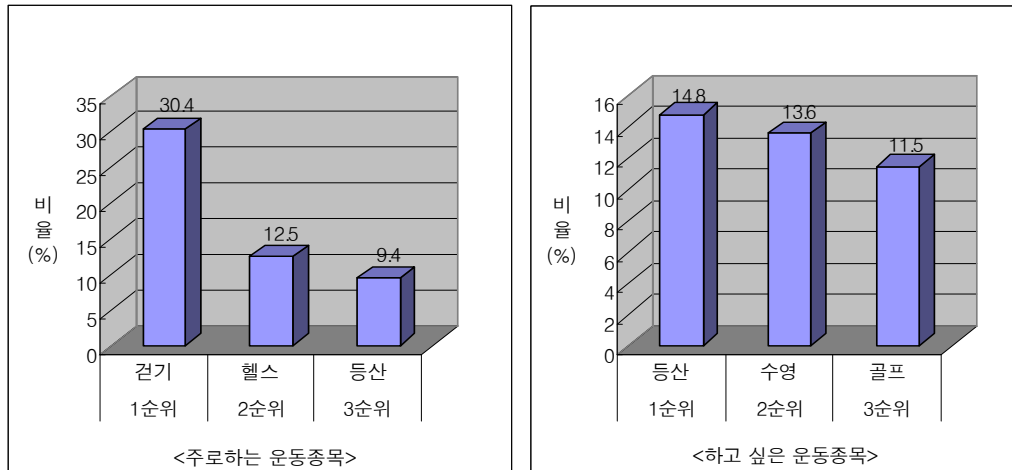
서울시민의 운동참여율은 성별, 교육수준, 직업, 가계소득,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. 여성보다 남성의 운동참여율이 높으며 대체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운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남. 공무원/교직원과 전문직종사자의 운동참여율이 다른 직업종사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대와 40대의 운동실천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.

		운동 참여	운동 미참여
성별	남성	65.4%	34.6%
	여성	57.6%	42.4%
최종학력별	무학	50.0%	50.0%
	초등학교 졸업	44.2%	55.8%
	중학교 졸업	54.8%	45.2%
	고등학교 졸업	58.8%	41.2%
	대학교 재학	60.5%	39.5%
	대학교 졸업	65.6%	34.4%
	대학원 재학	73.2%	26.8%
	대학원 졸업 이상	63.8%	36.2%
직업별	공무원/교직원	70.0%	30.0%
	사무직	60.1%	39.9%
	전문직	70.1%	29.9%
	생산/기능/노무직	56.0%	44.0%
	자영업	59.0%	41.0%
	판매/서비스직	58.8%	41.2%
	군인	66.7%	33.3%
	무직	51.5%	48.5%
	학생	60.6%	39.4%
	주부	64.6%	35.4%
	기타	56.2%	43.8%
수입별	100만원 미만	60.3%	39.7%
	101-150만원 사이	50.5%	49.5%
	151-200만원 사이	53.3%	46.7%
	201-250만원 사이	57.8%	42.2%
	251-300만원 사이	61.6%	38.4%
	301-400만원 사이	64.7%	35.3%
	401-500만원 사이	66.7%	33.3%
	500만원 이상	69.8%	30.2%
연령별	20대	60.6%	39.4%
	30대	57.2%	42.8%
	40대	59.9%	40.1%
	50대	66.0%	34.0%
	60대 이상	63.8%	36.2%

자료: 서울시정개발연구원, 2006, 「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정책 연구」.

2. 서울시민의 주요 참여운동종목과 참여희망 운동종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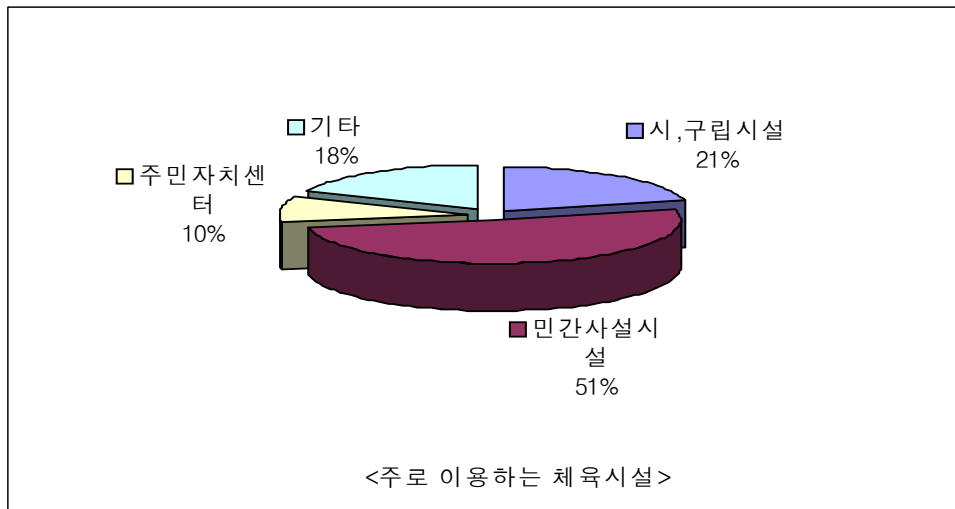
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종목은 걷기가 30.4%로 1순위였으며 그 뒤로 헬스(12.5%)와 등산(9.4%)으로 나타남.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운동종목은 등산이 14.8%로 1순위였고 수영이 13.6%, 골프가 11.5%로 나타났음.



자료: 서울시정개발연구원, 2006, 「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정책 연구」.

3.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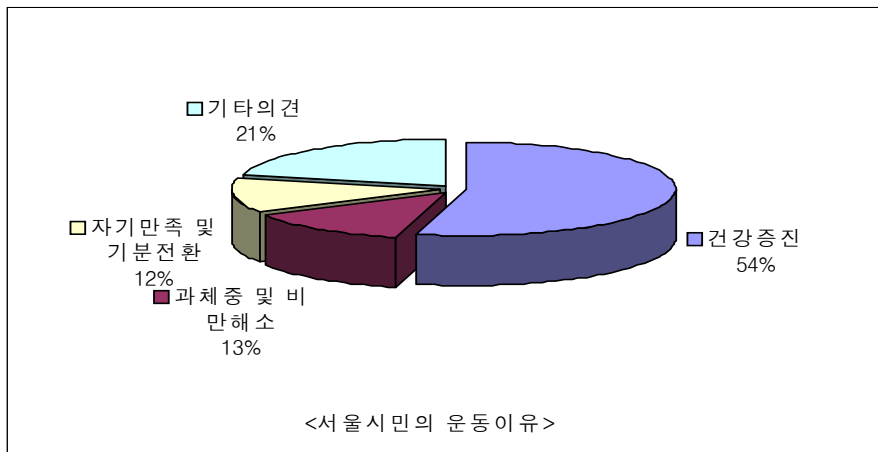
서울시민의 51%가 민간사설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, 구립시설과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한 생활체육활동 참여는 31%로 나타남.



자료: 서울시정개발연구원, 2006, 「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정책 연구」

4. 서울시민의 운동참여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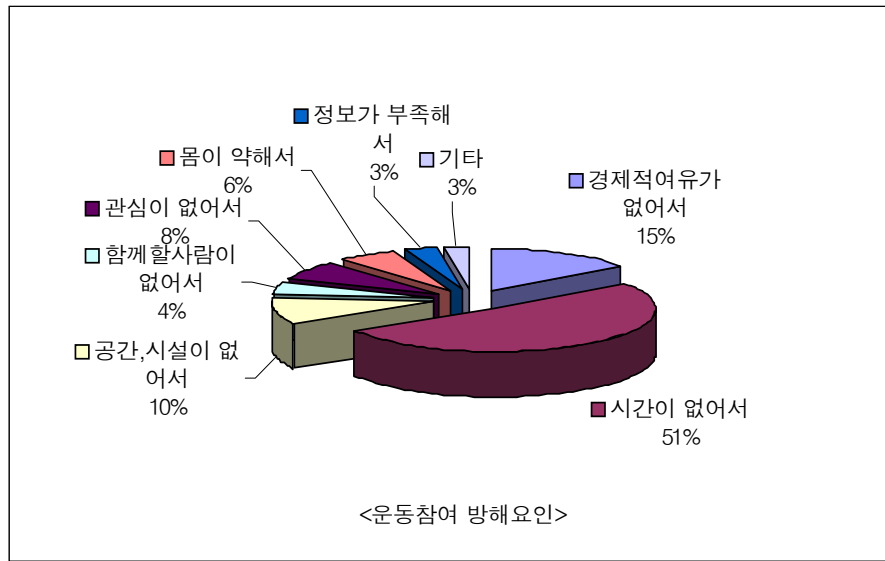
서울시민이 운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로 '건강증진을 위해서'가 54%로 나타났으며 '과체중 또는 비만해소'(12.7%), '자기만족 및 기분전환을 위해서'(12.3%)의 순으로 나타났음.



자료: 서울시정개발연구원, 2006, 「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정책 연구」.

5. 운동참여 방해요인

서울시민의 운동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'시간부족'이 51%로 가장 높았고, 이밖에 '경제적여유가 없거나'(15%), '운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부족'(10%)이 주요 방해요인으로 나타남.



자료: 서울시정개발연구원, 2006, 「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정책 연구」.